

메아리

Response

2025

Lee-Inchan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해 보고 싶은 일 있니?”

한 번도 해 본적 없던 이 질문은,
스물세 번의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다.

“Is there anything you'd like to do with me at school?”

I had never asked this question before. It came back to me
as twenty-three echoes.





이시호, 같이 하늘을 보고, 달리기 해요-Let's look at the sky and go for a run together,
가변크기,pigment print,2025



김미나, 불을 끄고 숨바꼭질을 하고 싶어요.,I want to play hide-and-seek with the lights off.,
가변크기,pigment print,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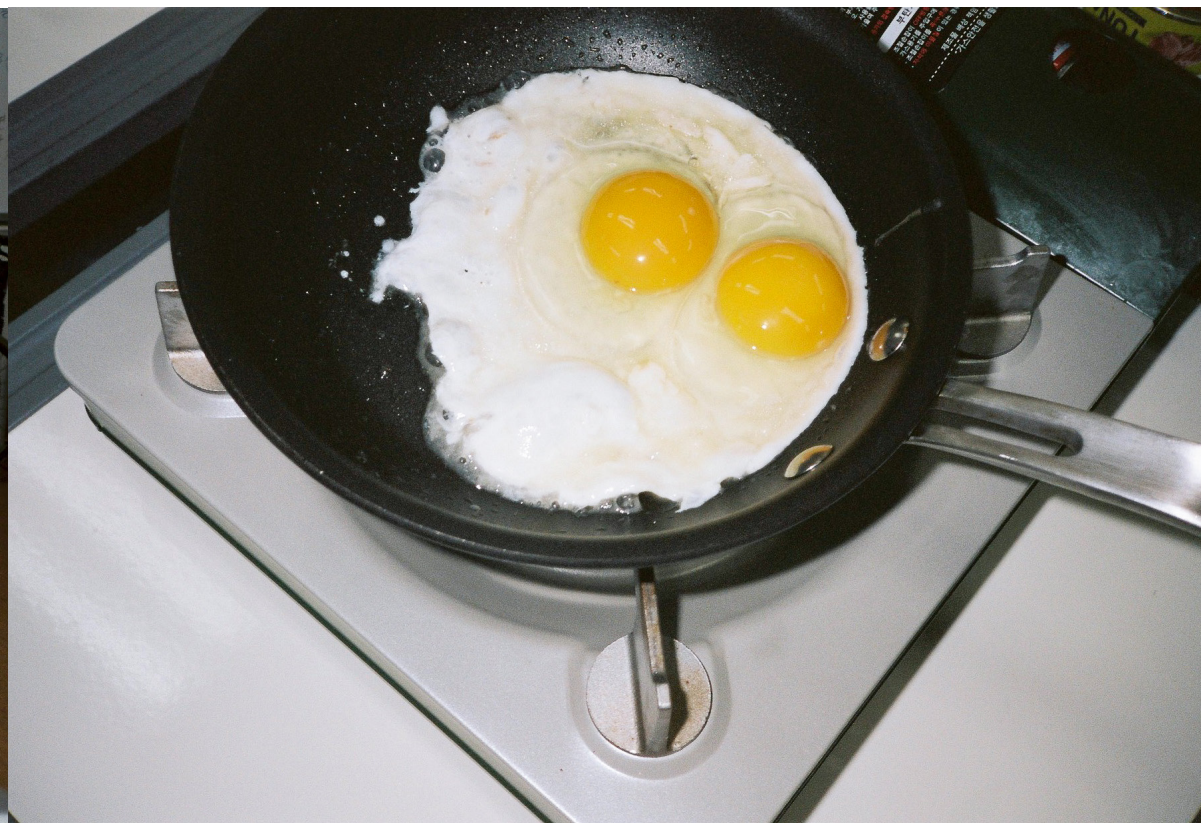
홍찬미, 바느질하고 싶어요.,How about sewing?,
가변크기,pigment print,2025





장현, 선생님이랑 축구를 하고 싶어요.,I want to play soccer with you.,
,가변크기,pigment print,2025





김서율,간장 계란밥을 만들어 주세요.,Can you make soy sauce egg rice for me?,
가변크기,pigment print,2025



박준우, 콜라에 멘토스를 넣고 싶어요, I want to put Mentos in Coke.,
가변크기, pigment print, 2025



김나연, 함께 꽃을 보고 싶어요.,Let's go look at the flowers in the schoolyard.,
가변크기,pigment print,2025



김시윤, 김민석, 체육관에서 술래잡기를 하고 싶어요., Can we play tag in the gym?,
가변크기, pigment print, 2025







한서아, 프린트해서 만들기를 하고 싶어요.,It would be fun to print something out and make it.,
가변크기,pigment print,2025





최지우, 떡볶이를 만들어서 같이 먹고 싶어요.,Let's make tteokbokki and eat it together.,
가변크기,pigment print,2025



유태하,주우재, 친구들 사진을 찍어주고 싶어요.,I'd like to take pictures of my friends.,
가변크기,pigment print,2025







작가노트

이인찬

나는 어린이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작업은 “선생님과 학교에서 무엇을 해보고 싶니?”라는 질문에서 시작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이 질문은 23개의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다. 나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한 뒤, 어린이들이 함께 해주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에 있었던 일을 자동 필름카메라로 같이 기록하였다. 〈메아리〉는 9세 어린이 23명의 요청에서 출발해, 학교라는 제도적 환경 안에서 ‘요청-행위-기록-새로운 요청’이 순환하는 구조를 실천한 작업이다. 이 순환은 창작의 기원을 어린이에게 두고, 그 과정에서 교육과 예술 내의 고정된 역할-교사와 학생, 예술가와 참여자-을 변환시킨다. 특히 사진은 이 구조의 중심에서 인터페이스로 기능한다. 단순한 기록을 넘어, 사진은 어린이와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로 작동하며, 어린이가 자신의 생각과 감각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도록 발화를 이끌어낸다.

Artist Statement

Lee-Inchan

I work collaboratively with children. This project began with a simple question: “What would you like to try doing with your teacher at school?” While teaching children, I realized that I had never asked them this question before. The responses returned to me as twenty-three echoes. After preparing the time, place, and necessary materials, I waited for the children to join. Together, we documented what happened on those days using automatic film cameras. 〈Response〉 begins with the requests of twenty-three nine-year-old children. Within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of the school, the work enacts a cyclical structure of “request – action – documentation – new request.” This cycle places the origin of creation with the children and transforms the fixed roles embedded within education and art—such as teacher and student, artist and participant. Photography functions as an interface at the center of this structure. Beyond simply documenting, photography functions as an interface connecting children with the outside world, encouraging them to articulate their thoughts and perceptions.